



◀ 합천지부 사무실 앞. 뒤쪽 좌측에서부터 유홍빈 부지부장, 권용석 지부장, 김병구 운영위원, 김수정 운영위원, 앞쪽 좌측 김규한 운영위원, 우측 강화봉 고문.

회원농가에 필요한 사업전개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남 합천지부

취재 : 정재은

경남 합천지부(권용석 지부장, 만52세)는 양돈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며 회원들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문제점이 무엇인지 신속하게 파악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관련업계와 끊임없는 교섭을 해나가고 있다.

합천지부는 직접 시센터, 분뇨수거차, 돼지수송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실질적인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약품, 기자재 등을 공동 구매하여 원가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흥삼박을 이용한 심바우포크 돈육브랜드를 개발하여 담백하고 탄력 있는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다. 그밖에 컨설팅 회사와 계약하여 매월 월례회의 때 양돈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5개 시·군 체육대회와 합천군 축산인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다른 지부 및 단체와 함께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축산박람회나 브랜드전 등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매년 4월 합천 빛꽃 마라톤대회 행사 개최시 소비자들과 전국 마라톤 참가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하고 있다.

합천지역 양돈산업의 구심체 역할을 하는 합천지부

합천은 산간 및 내륙지역으로 경상도에서 축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양돈의 경우 김해에 이어 2번째로 사육두수가 많다.

합천지부는 1986년 3월에 설립되었다. 현재 합천지역에서 280농가가 14만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500두 이상 규모의 86농가가 12만두를 사육하고 있다. 이중 57명이 지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9만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다.

임원은 현재 제8대 권용석 지부장을 중심

으로 김규성·유홍빈 부지부장, 김명겸·김영도 감사, 이종희 총무, 김규한·김수정·김병구·김용찬·박인식·박성규·백성환·윤성길 운영위원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원들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허성환, 권병근, 하수갑, 안석환, 강화봉 고문(전직 지부장 역임)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다.

합천지부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부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회원들과 끊임없는 의견교환을 통해 작은 사항이라도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다. 임원들은 열의와 봉사정신을 갖고 회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부는 생산성향상대책위원회, 소비향상대책위원회, 수급조절가격안정위원회, 사료대책추진위원회로 나뉘어져 있으며, 회원들은 각기 위원회에 소속되어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합천지부는 회원들로부터 월4만원의 회비와 각종 사업 전개를 통한 수익금 중 일부를 지원 받아 운영되고 있다.

AI센터, 분뇨수거차, 돼지수송차 운영으로 비용 절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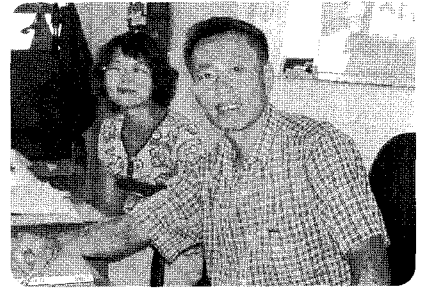
합천지부는 직접 AI센터와 분뇨수거차, 돼지수송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실질적인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고 있다.

AI센터는 1999년 12월부터 운영되어 오고 있으며, 현재는 캐나다의 검증된 종돈만을 들여오기 때문에 정액 품질이 보장되어 있다. 생산성이 향상되어 등급판정이나 증체량 등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종돈개량 효과도 나타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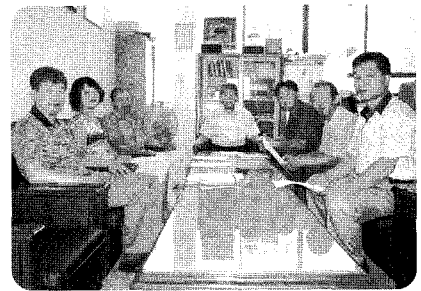
▶ 경남 합천지부 권용석 지부장



▶ 합천지부 이종희 총무(우측)와 이현희 감사



▶ 임원들은 진행하고 있는 사업 현황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좌측부터 김수정 운영위원, 이현희 감사, 유홍빈 부지부장, 권용석 지부장, 김규한 운영위원, 김병구 운영위원, 강화봉 고문



있다. 최고 품질의 정액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비용절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8톤 짜리 1대, 24톤 짜리 2대의 분뇨수거차를 운영함으로써 비용절감 기회를 제공하고 분뇨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아울러 5톤 짜리 돼지수송차 2대가 운영되고 있다. 분뇨수거차 및 돼지수송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기사, 배차 간격, 결산 및 수금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다. 그리고 니뿔, 보온등, 이포 등 각종 소모기자재와 계절에 따라 필요한 약품, 미생물제재 등을 공동 구매하여 원가에 공급하고 있다.

한편 회원들이 직접 출자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배합사료 공장을 설립중에 있다. 월



◀ 합천지부 기자재실



▲ 지난 2008년에 개최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합천지부는 사료에 홍삼박과 미생물 등을 첨가한 심바우포크 브랜드돈육을 생산·홍보해 나가고 있다.

5,000톤 규모의 배합사료 생산이 이루어져 적정 가격에 원활한 사료공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으로 회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여유가 있을 때는 비회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지난 9월 1일 개최된 임원회의 모습, 합천지부는 다양한 사업과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임원들과 끊임없는 의견교환을 통해 작은 사항이라도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고 있다.

■ 심바우포크 브랜드돈육 개발 등록

합천지부에서는 심바우포크 브랜드돈육을 개발·등록하였다. 지난 2000년도 8개 농가로 시작하였으며, 2003년 7월에 상표로 등록되었고, 현재는 30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사료에 홍삼박과 미생물 등을 첨가한 브랜드돈육으로 담백하고 탄력 있는 돼지고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A·B등급이 많이 출현하고 있으며, A·B등급 출현시 합천군으로부터 두당 1,000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매년 4월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 행사에서 심바우포크 무료시식회를 개최하고, 축산물브랜드 경진대회 및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반 소비자들에게 홍보해 나가고 있다.

■ 월례회의 및 양돈컨설팅과 무료시식회 등 전개로 활발한 지부 운영

합천지부는 14명의 임원이 1주일에 최소한 1번 이상 모여 사업 진행과정 등을 점검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또한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월례회의를 개최하는데 회원들 80% 이상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교환



▲ 지난 2004년 4월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 행사에서 개최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

을 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부터 컨설팅 회사와 연간 계약을 맺고, 월례회의 때 질병·경영·환경 등 각 분야 양돈컨설팅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요청시 현장컨설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매년 4월 합천 벚꽃 마라톤대회 행사 때 소비자들과 전국 마라톤 참가자 등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돼지고기 무료시식회를 개최하여 돼지고기의 우수성과 수출부위를 보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홍보하고 있다. 아울러 심바우포크의 특이성과 육질의 우수성도 널리 알리고 있다.

다른 지부 및 관련 기관과의 유대 관계 유지

합천지부는 진주·거창·산청·함양지부와 매년 가을에 5개 시·군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친목도 도모하고, 다른 지부의 사업 및 행사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또한 합천군 양봉협회, 한우협회 등 3개 단체가 모여 매년 5월에 합천군 축산인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다른 축종 기관과 교류를 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지부 및 단체와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부상조하고 있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 및 관련업체와 교섭을 해나가고 있다.

한편 회원들은 국제축산박람회나 해외 선진지 견학 등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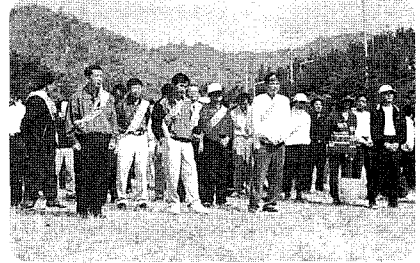
양돈의 전 과정이 연결되는 원-원 전략을 추구해야

합천지부는 사료, 종돈, 사양관리 등을 통일

- ▶ 지난 2003년 12월에 개최된 합천지부 2003 결산총회 및 송년의 밤 행사



- ▶ 지난 1999년 가을에 개최된 경남지역 5개 시·군 합천·진주·거창·함양·산청지부 체육대회



- ▶ 지난 2004년 3월 29일에 개최된 제2회 합천군 축산인 체육대회



하고, 기능성 브랜드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권용석 지부장과 김규한 운영위원은 “양돈의 전 과정을 연결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원-원 전략으로 양돈산업을 경쟁력 있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지부장은 “모든 회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회원들간에 경조사를 챙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면 활기차고 열려 있는 지부가 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종희 총무는 “축산분뇨비료화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회와 연구기관이 협동해 나가고 정부의 지원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밖에 운영위원들은 사료의 현금결제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이루어지고, 분뇨수거차와 돼지수송차 등 운영시 면세유로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이 뒤따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양돈**